



산업자원부, 15대 전략기술 선정 및 신R&D전략 발표

2015년 미래 산업기술 비전 선포식 이모저모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월 2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래 산업기술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15년을 대비할 미래 전략기술 분야와 R&D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확보해야하는 혁신주도기술 20개 분야의 78개가 선정, 발표됐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유류,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등 15개 차차세대(次次世代) 전략기술 분야에는 향후 국가 R&D 예산의 70%가 투입될 전망이다.

취재/박지연 기자

국가 R&D 예산의 70%가 집중되는 차세대 전략기술 15대 분야를 포함하여 향후 10년을 내다봤을 때 실생활에서 활용가능하고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확보해야하는 혁신주도기술 20개 분야의 78개 기술이 선정, 발표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월 2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래 산업기술 비전 선포식'을 열고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할 산업기술 R&D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IT, BT 등 신기술 발달이 가속화되고 기술간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기술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성장과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며 "금번

2015년 미래 산업기술 비전 선포식 이모저모



▶산업자원부는 12월 21일 세계 경제 10강, 산업 4강을 달성을 위한 '미래 산업기술 비전 선포식'을 갖고 향후 10년을 주도할 산업기술 R&D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이현순 현대자동차 사장, 이계순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 정준석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최홍건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김철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월 2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래 산업기술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개 산업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초정밀광학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생산시스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섬유기계연구소의 전두환 소장

로드맵 수립과 함께 주력 산업의 글로벌 톱을 지향하고 미래 유망산업 신기술 선점을 통해 세계경제 10강, 산업 4강을 달성하여 201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달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정준석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2015년 산업기술 비전 및 산업기술로드맵'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한 간략한 성과보고를 들은 뒤,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으로부터 '신산업기술 R&D전략'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또한 11시 30분부터 각각의 세미나실에서 각 산업별 로드맵 발표 시간을 가졌다. 로드맵 작업에는 지난해 초부터 5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15대 전략기술은 7개 주력산업기술, 4개 유망기술, 4개 기반기술 등으로 구성됐다. 주력산업기술로는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자동차 및 조선 · 섬유 의류 · 생산시스템 · 화학공정소재 · 금속재료 등이 선정됐다. 미래유망기술로는 바이오와 차세대로봇 · 디지털컨버전스 · 차세대 의로기기 등이 선정됐다. 또한 기반기술에는 나노기반 · 생산기반 · 청정기반 · 지식서비스기반 등이 뽑혔다.

산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15대 전략기술은 그동안 업계 · 대학 · 연구소 등에서 큰 관심을 보여 왔다”며 “당초 예상보다는 더욱 포괄적인 개념에서 과제를 선정, 향후 신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기술발전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는 대부분 15대 전략과제에 포함되며 올해 4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에 본격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로드맵 기술개발과 지원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15대 전략기술 위주로 기술개발 우선순위를 먼저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조성 · 인력양성 · 특허 및 표준 대응 등 패키지형 형태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